

대행 스님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그대로 전 우주에 음파로써 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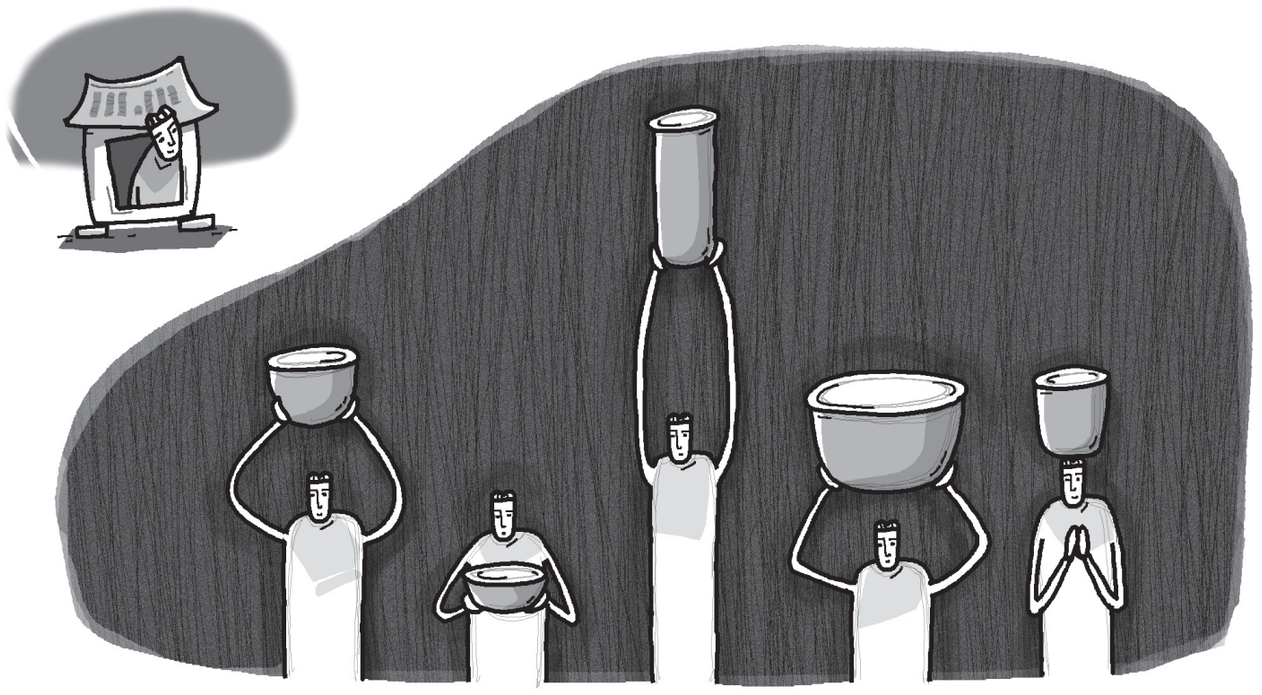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간단하게 이렇게 오계를 설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술 먹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전자에는 모두 이렇게 해 놨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내 몸과 같이 내 생명과 같이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더 유유하고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망어계이니, 일체 거짓말하지 않고 입을 조심하고 항상 진실되게 살겠습니까"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도 또한 내 마음과 같이 항상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술을 과음하지 말며, 과음하게 되면 항상 분수를 모르고 날뛰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더러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망취하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꼿꼿이 내 중심을 지키시라 이 소립니다.

그러니 이 오계를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마음을 마음대로 쓰되 여러분이 마음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모두가 참, 마음이다 하면 진짜로 마음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천차만별로 마음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쓰는데 어떤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천차만별로 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마음을 골라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근데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계를 받고 설법을 듣고 또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참선이다 하는 것도, 생활이 즉 참선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그치고 드러누워서 죽는다면 지구도 돌아가다가 끝나는 거와 같이, 자기가 그냥 끊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 있는 이상 모두가 움죽거리고 삽니다. 자도 숨을 쉬고 자고. 야, 24시간 움죽거리지 않는 거 보셨습니까? 숨 안 쉬고 사는 거 보셨습니까? 모두가 숨 쉬고 산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참선이라 이 소립니다. 이 모두가 참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진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좌선을 하고 앉아 있을 때에 지구도 같이 돌아가다가 여러분이 다 했다고 일어나면 지구가 끊어집니까? 그대로죠? 그대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즉 말하자면 내 이 생활 아닌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자유를 얻어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야 된다 이 소립니다.

우린 이 세계에서도, 야, 이 세계에서 죽고 이 세계에서 형성되고,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이 오계를 받아서 때에 따라서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진실이다. 그러면 정신계는 또 무엇이냐. 정신계도 진실이다. 그렇다면 양면이 다 우리가 이 계를 받고 진실하게만 하신다면, 이 모습과 이 정신계 마음과 내 육신을 모두 잘 이끌어 가지고 갈 때 남들도, 상대도 잘 이끌어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길로, 즉 말하자면 걸음을 걷지 않고 함이 없이 걸음을 걷는다, 함이 없는 손이다, 함이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항상 그런 말을 하죠. 물 한 컵을 먹는데 여러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마르니까 물 마실 겁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의식적으로 잠재해 있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마신다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다는 그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다면 바로 이 속의 생명들의 중생들은, 의식들은 다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둘로 나누어지니까, 즉 말하자면 항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같이 한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계는커녕 단 한 계도 제대로 못 지키는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하는 거 같지만 엄청난 도리인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면서도 함이 없는 것, 함이 없으면서 그냥 할 뿐이었다. 그냥 걸으면 걸었을 뿐인데 걸은 사이가 없다. 내가 말은 했는데 말한 사이가 없다. 내가 듣기는 했는데 들은 사이가 영 없다. 이게 모두가 여러분이 진실한 길을 걷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는데에 그게 진짜…. 이 길을 그냥 길로 보지 말고 한번 뒤집어서 길을 걸어 보면 어떨까 생각도 합니다. 뒤집어서 걸어 보면 바로 걷는 거를 알게 되는 이런 이치가 있죠.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뒤집어서 걸으라고 했다가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거꾸로 다닐 수도 있고 거꾸로 설 수도 있고 또 옆으로, 그냥 저런 데로 갈 수도 있고 큰 강도 건널 수 있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갈 수도 있고 영국에서 서독으로 올 수도 있고 또는 한국에서 이 서독도 올 수 있고 서독에서 한국으로 나갈 수도 있고, 찰나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두고 가고 온다 이러는 거는 사사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이치지, 어떻게 근본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며 그 마음이 오고 감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딴 사람한테 결부가 되겠습니까?

일을 봐야 되니까 아프면 아픈 사람하고 둘이 아니게 돼야 그 병을, 의사로서 그 병을 안에 가서 고칠 수 있고 또 가정에서 사시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한 아들이 아프다 이럴 때 아들이 아픈데 어떻게 부모가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리를 알기 이전에는 그렇게 가깝게 자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리만리 아주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아들한테로 가려도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아들을 낫게 해 줄 수 있는 마음은 정말이지 하늘같이 가지고 있겠지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도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 찰나에 거기 들어가서 의사가 돼 줄 수 있고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와서 그렇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 하고 또 집이 은행에 다 넘어간다 이런 문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살아가면서 파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여하게 해결하면서 너끈히 믿고 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대담한 사람들이 된다면 이거는 너무도 정말 즐거운 영락입니다. 즉 말하자면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천당이다 이 소립니다. 이 천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를 잘 이끌어서 내가 잘 행동할 수 있고 또 어떠한 거든지 모두 타파해서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해 나가다가 보면 그게 바로 극락이고 그게 바로 천당 아니겠습니까. 천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축생 세계, 업보 세계, 유전성 또는 영계성 또는 인과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두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의 마음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못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

☞ A24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